

#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증가율 및 환율 전망

- I.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
- II.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여건 전망
- III. 수출기업의 2012년 환율 전망

작성 : 선임연구원 이재우 (3779-6695)  
jaewoolee@koreaexim.go.kr

확인 : 실장 이진권 (3779-6670)  
ljinguhan@koreaexim.go.kr

## 요 약

### 1.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

#### ☐ 수출기업들의 2012년 수출증가율(전년동기대비) 전망은 평균 4.5%임\*

\* 개별수출기업의 수출증가율 전망을 단순평균한 것으로 기업별 수출규모 및 비중은 고려되지 않음

\* 기업별 수출비중을 고려한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 : 7.4%(기획재정부), 7.8%(무역협회)

수출금액 전망 : 5,565억달러(2011) → 5,977억달러(2012, 기재부 증가율 전망 기준)

- 0% 내외의 증가율을 전망한 기업이 3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, 10% 내외의 증가율을 전망한 기업이 23%로 그 다음 높은 빈도수를 기록함
- 산업별 평균 수출증가율 전망을 보면, 플랜트 산업이 7.9%로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며, 선박업체의 경우 평균 -3.2%의 증가율을 전망

### 2.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여건 전망

#### ☐ 수출기업중 26%가 2012년도 수출여건이 2011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 반면 23%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49%는 2011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

- 수출여건 개선을 전망한 기업의 비중이 전년도(34%)보다 크게 하락하여 수출기업의 올해 수출여건 전망이 전년도보다 악화됨
- 산업별로는 기계류 업체의 31%가 전년도보다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 반면, 선박업체의 경우 업체중 55%가 업황 악화를 예상

\* 2011년 조사결과 : 기계류 업체(36.7% 개선, 17.8% 악화), 선박업체(43.8% 개선, 18.8% 악화)

#### ☐ 2012년도 수출여건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(48%)로 나타남

### 3. 수출기업의 2012년 환율 전망

#### ☐ 수출기업은 2012년도 원/달러환율을 1,098원/달러(연평균 기준)선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\* 2011 연평균 환율 : 1,108원/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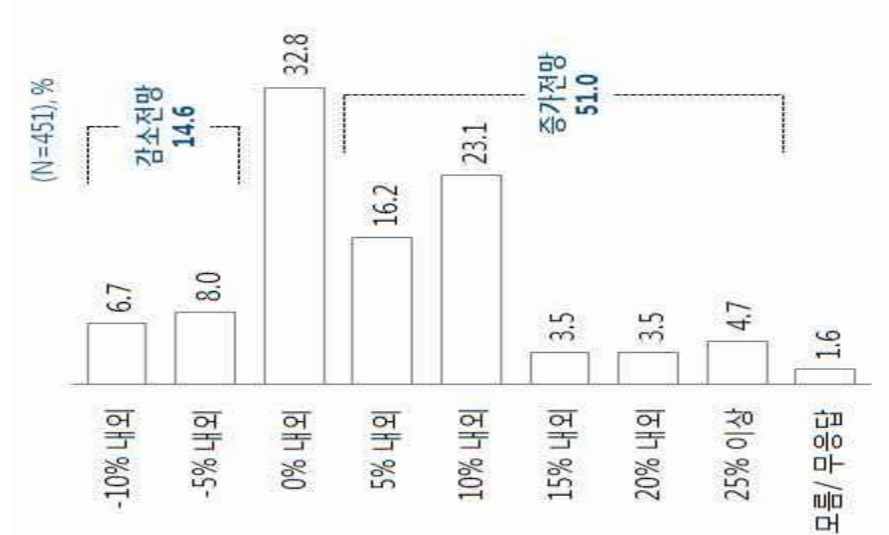
#### ☐ 수출기업의 손익분기 환율은 평균 1,091원/달러로 나타나, 수출기업은 2012년도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지 않음

## I.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

□ 수출기업들의 2012년 수출증가율(전년동기대비) 전망은 평균 4.5%로 나타남<sup>1)</sup>

- 이는 전년(평균 7.5%)보다 낮은 전망으로, 기업들은 2012년 대외 수출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임
- 이는 세계경제의 둔화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, 유럽재정위기 등 위험요인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
- 0% 이외의 증가율을 전망한 기업이 33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, 10% 이외의 증가율을 전망한 기업이 23%로 그 다음 높은 빈도수를 기록함
- 전년대비 감소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5%이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의 비중은 51%임
- 증가를 예상하는 기업도 대부분 5%~10% 내외를 전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2012년 수출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

<수출기업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 분포 및 평균증가율>



1) 개별수출기업의 수출증가율 전망을 단순평균한 것이므로 기업별 수출규모 및 비중은 고려되지 않은 것임

- 대기업 증가율 전망 평균은 4.7%, 중소기업은 4.4%로 중소기업의 경기둔화 우려가 대기업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
- 대기업의 경우 15% 이상 수출증가율을 예상하는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대·중소기업간 수출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
<기업 규모별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 분포>

	-10% 내외	-5% 내외	0% 내외	5% 내외	10% 내외	15% 내외	20% 내외	25% 이상	평균
대기업	4.8%	4.8%	34.9%	17.5%	20.6%	4.8%	4.8%	3.2%	4.7%
중소기업	4.1%	6.8%	37.0%	21.9%	21.9%	1.4%	4.1%	1.4%	4.4%

- 산업별 평균 수출증가율 전망을 보면, 플랜트 산업이 7.9%로 가장 높은 수출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며, 자동차 및 부품(5.2%), 섬유(5.2%) 산업이 5% 이상을 전망하고 있음
- 철강 및 비철금속(3.9%), 전기전자(4.0%), 석유화학(4.7%), 기계류(4.8%) 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 전망은 5% 이하를 기록
- 선박업체의 경우 평균 -3.2%의 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으며 10% 이상의 증가율을 전망하는 기업이 전무하여 수출업황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임
- 수출증가율 전망 분포를 산업별로 보면, 전기전자업체의 경우 25% 이상을 전망하는 기업이 6.5%인 반면,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도 16.8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
- 플랜트 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이 없고 10% 이상을 예상하는 기업도 57.2% 매우 높아 업황전망이 상대적으로 밝음

**<산업별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 분포>**

	-10% 내외	-5% 내외	0% 내외	5% 내외	10% 내외	15% 내외	20% 내외	25% 이상	평균
석유화학	4.8%	4.8%	34.9%	17.5%	20.6%	4.8%	4.8%	3.2%	4.7%
철강/ 비철금속	4.1%	6.8%	37.0%	21.9%	21.9%	1.4%	4.1%	1.4%	3.9%
전기전자	7.5%	9.3%	33.6%	16.8%	19.6%	2.8%	1.9%	6.5%	4.0%
기계류	11.8%	6.7%	25.2%	12.6%	27.7%	5.0%	3.4%	5.9%	4.8%
자동차	1.9%	11.1%	31.5%	18.5%	22.2%	7.4%	3.7%	3.7%	5.2%
선박	18.2%	36.4%	36.4%	9.1%	0.0%	0.0%	0.0%	0.0%	-3.2%
섬유류	0.0%	4.9%	36.6%	14.6%	34.1%	0.0%	2.4%	4.9%	5.2%
플랜트	0.0%	0.0%	42.9%	0.0%	42.9%	0.0%	0.0%	14.3%	7.9%

□ 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 수출기업의 평균 수출증가율이 6.9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동지역이 6.7%를 기록함

- 중국(3.9%)과 일본(3.3%), 동남아(3.2%) 지역 수출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증가율을 전망하고 있음
- 반면, 미국(4.9%), 유로(5.3%) 지역 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전망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, 향후 선진국의 경기개선이 상대적으로 개도국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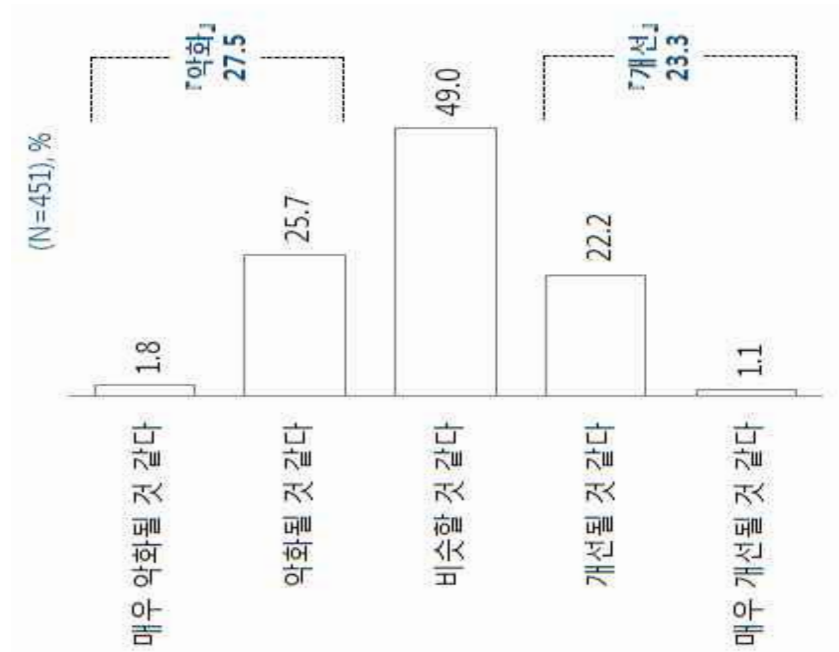
**<지역별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증가율 전망 분포>**

	-10% 내외	-5% 내외	0% 내외	5% 내외	10% 내외	15% 내외	20% 내외	25% 이상	평균
미국	7.1%	8.0%	29.2%	16.8%	23.0%	3.5%	6.2%	4.4%	4.9%
중국	5.9%	6.9%	38.6%	14.9%	24.8%	0.0%	3.0%	4.0%	3.9%
일본	8.7%	10.1%	36.2%	13.0%	23.2%	2.9%	2.9%	2.9%	3.3%
유로	6.5%	9.7%	27.4%	19.4%	19.4%	3.2%	3.2%	9.7%	5.3%
동남아	8.9%	7.1%	35.7%	21.4%	19.6%	3.6%	0.0%	3.6%	3.2%
중남미	7.7%	0.0%	30.8%	0.0%	23.1%	23.1%	0.0%	7.7%	6.9%
중동	0.0%	10.0%	20.0%	16.7%	33.3%	10.0%	3.3%	3.3%	6.7%

## II. 수출기업의 2012년 수출여건 전망

- 수출기업중 26%가 2012년도 수출여건이 2011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판단한 반면 23%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49%는 2011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함
  - 수출여건 개선을 전망한 기업의 비중이 전년도(34%)보다 크게 하락하여 수출기업의 올해 수출여건 전망이 전년도보다 악화됨
  - 대기업의 경우 24%가 개선될 것으로, 28%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은 23%가 개선될 것으로, 27%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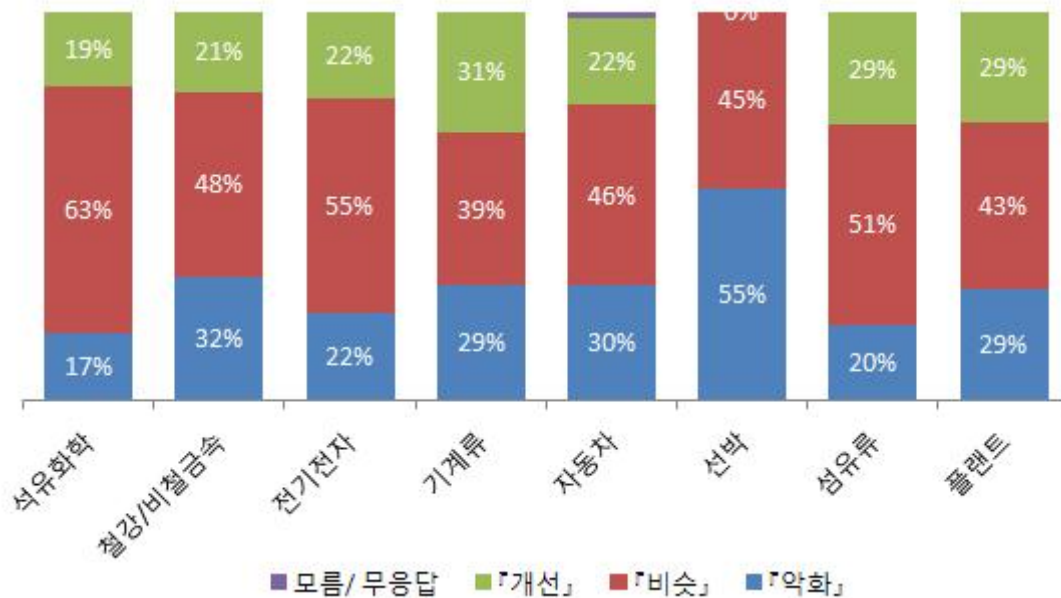
<수출기업의 2011년대비 2012년 수출여건 변화 전망 분포>



- 산업별로는 기계류 업체의 31%가 전년도보다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
- 섬유류 및 플랜트 업체중 29%가 업황개선을 전망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, 나머지 산업에서 업황개선을 전망한 기업의 비중은 20% 초반에 불과함

- 한편, 선박업체의 경우 업체중 55%가 업황 악화를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45%도 업황개선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 조선업 업황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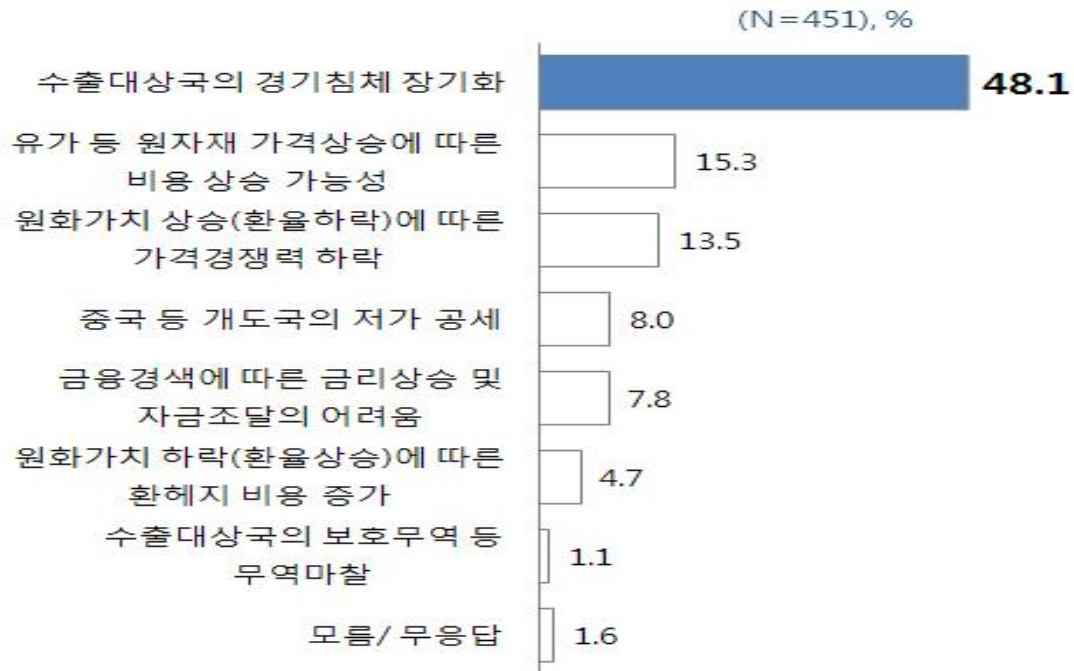
<산업별 2011년대비 2012년 수출여건 변화 전망 분포>



□ 2012년도 수출여건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(48%)로 나타남

- 다음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(15.3%),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(13.5%)를 차지함
- 2011년도 조사에서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우려가 40.7%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비교할 때,
  - 수출기업은 2012년도 전세계적인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의 위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확대됨
  - 그러나 수출기업의 환율하락에 대한 우려가 축소되기 보다는 수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출대상국의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임

## <2012년중 수출기업이 우려하는 수출여건 부분>



- 산업별로는 석유화학, 플랜트 및 자동차 업체가 유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고, 전기전자 및 섬유류 업체가 환율하락에 대한 우려가 다른 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
- 플랜트 업체의 경우에는 자금조달에 상대적으로 애로사항이 큰 것으로 나타남

## <2012년중 수출기업이 우려하는 수출여건 부분 : 산업별>

	수출대상국의 경기침체	금리상승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	원화가치 상승	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	보호무역 등 무역마찰	유가 등 원자재 가격	환율변동에 따른 환헤지 비용 증가
석유화학	47.6%	6.3%	11.1%	4.8%	1.6%	27.0%	1.6%
철강/비철금속	54.8%	8.2%	11.0%	11.0%	0.0%	11.0%	1.4%
전기전자	50.5%	7.5%	16.8%	9.3%	0.9%	12.1%	2.8%
기계류	51.3%	8.4%	9.2%	9.2%	1.7%	8.4%	8.4%
자동차	42.6%	3.7%	16.7%	5.6%	0.0%	20.4%	9.3%
선박	63.6%	18.2%	0.0%	0.0%	0.0%	9.1%	9.1%
섬유류	56.1%	4.9%	22.0%	0.0%	2.4%	12.2%	2.4%
플랜트	28.6%	28.6%	14.3%	0.0%	0.0%	28.6%	0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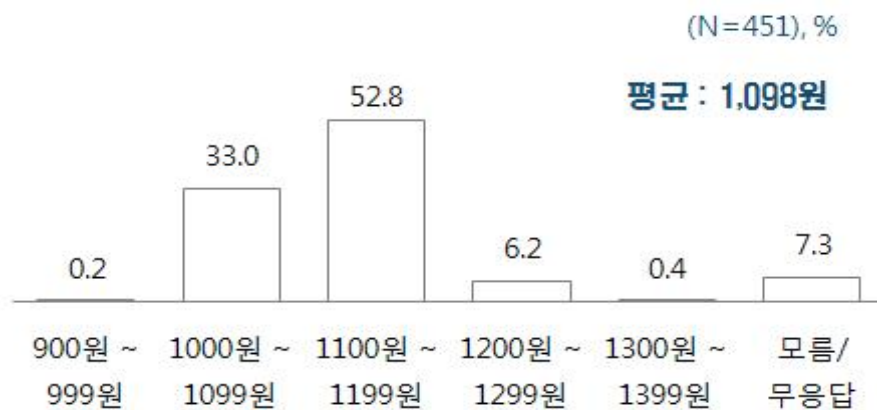


### III. 수출기업의 2012년 환율 전망

□ 수출기업은 2012년도 원/달러환율을 1,098원/달러(연평균 기준) 선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
○ 수출기업중 53%가 1,100~1,199원/달러 수준을, 33%가 1,000~1,099원/달러 수준을 전망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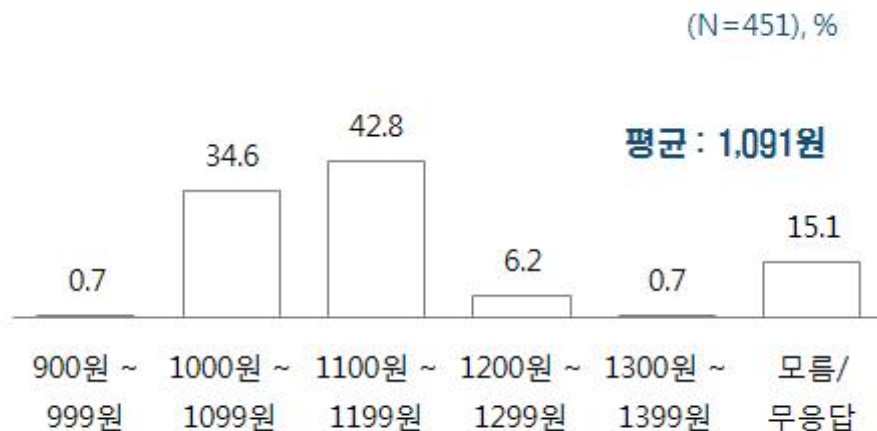
<수출기업의 2012년 원/달러환율 전망>



□ 수출기업의 손익분기 환율은 평균 1,091원/달러로 나타남

○ 수출기업중 43%가 1,100~1,199원/달러 수준을, 35%가 1,000~1,099원/달러 수준을 손익분기 환율로 보고 있음

<수출기업의 2012년도 손익분기 환율>



- 산업별로는 자동차 업체의 손익분기 환율이 1,100원/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환율하락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음
- 한편, 플랜트업체의 손익분기 환율은 1,067원/달러 수준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
- 나머지 산업의 손익분기 환율은 1,090원/달러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
**<산업별 수출기업의 2012년도 손익분기 환율>**

	900원~ 999원	1,000원~ 1,099원	1,100원~ 1,199원	1,200원~ 1,299원	1,300원~ 1,399원	평균(원)
석유화학	1.6%	31.7%	50.8%	6.3%	0.0%	1,091.1
철강/ 비철금속	1.4%	32.9%	43.8%	4.1%	0.0%	1,087.7
전기전자	0.0%	36.4%	44.9%	4.7%	0.9%	1,089.3
기계류	0.8%	34.5%	38.7%	7.6%	0.8%	1,089.6
자동차	0.0%	31.5%	42.6%	9.3%	0.0%	1,102.0
선박	0.0%	36.4%	27.3%	9.1%	0.0%	1,097.5
섬유류	0.0%	36.6%	34.1%	9.8%	0.0%	1,093.8
플랜트	0.0%	57.1%	28.6%	0.0%	0.0%	1,066.7

□ 수출기업의 2012년도 환율전망치가 손익분기 환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, 수출기업은 2012년도 수출채산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됨

- 특히, 플랜트업체의 경우 환율전망치와 손익분기 환율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, 해당산업의 수출채산성 우려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

# <수출기업의 2012년 월/달러 환율전망과 손익분기 환율 비교>



## 참고 : 설문조사 개요

- 설문기간 : 2011년 12월 10일 ~ 12월 18일
- 설문회수 기업수
  - 총 451개 기업(대기업 114개, 중소기업 337개)